

축 사

불기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개최하는 ‘제19회 한국불교사진협회 정기회원전’과 ‘제8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의 사찰을 찾아 우리 불교문화재를 세상에 알리는 즐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결실이기에 더욱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일체중생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면서 시민들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일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앵글에 비춰지는 부처님의 미소를 새롭게 탄생시켜 불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정성은 일선 포교사의 역할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수많은 노력에서 얻어지는 빼어난 안목의 결과일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인 풍경(風磬)은 단순한 경세의 의미를 넘어 수행자나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방일이나 나태함을 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영원의 가르침이 깃들여 있다는 말씀처럼 사진 한 컷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대작불사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수려함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여러분!

교계 유일의 대표적인 한국불교사진협회가 불기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개최하는 금번 정기회원전과 청소년 사진공모전이 많은 시민과 감동과 행복을 나누며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아름답고 뜻 깊은 자리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주시는 임원진과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한국불교사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작가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